

하나금융그룹의 또 하나의 ‘신남방정책’

# 김정태 “세계 여성골프 중심, 아시아로 옮긴다”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코리아오픈 조인식**  
내년 10월 亞 KLPGA 투어 개최  
‘亞LPGA’의 최종전 역할 겸임

하나금융그룹이 골프를 통해 아시아의 메이저를 향한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선다. 여성 골프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포부다.

하나금융그룹은 내년부터 주최하는 여성 골프대회의 주관 협회를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옮겨 국내투어 최대상금 규모의 ‘하나금융그룹 코리아오픈(가칭)’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최 시기는 10월 중, 장소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오션코스가 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과 KLPGA는 이와 같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갈라파티 리셉션 장에 모인 내외 귀빈이 내년부터 시작될 ‘아시안 LPGA 시리즈(가칭)’ 런칭에 뜻을 모으는 의미를 담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로운 골프 역사 쓰는 자리에 함께 한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왼쪽부터),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 KLPGA 김상렬 회장,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대만골프협회 왕정송 회장, 대한골프협회 허광수 회장, 중국 CLPGA 리홍 총경리.

/하나금융그룹

내용으로 지난 10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 미팅룸에서 개최 조인식을 가

졌다.

또 대회의 개최와는 별도로 한국, 중

국, 대만을 비롯한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등 아시아 국가와 연계한 ‘아시안(Asian) LPGA 시리즈(가칭)’의 런칭을 계획 하며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안(Asian) LPGA 시리즈’는 이러한 현상에서 탈피하고 아시아 지역 골프의 균형적인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나온 결과다. 여기에 그룹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에 맞춰 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조와 함께 하려는 목적이 있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월 KPGA 대회인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을 시작하며 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와 교류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올해까지 함께하던 미국 LPGA와의 재계약 대신, KLPGA 투어와 함께 대회를 만든 후 KL

PGA를 중심으로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및 브루나이 등의 국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은 “아시아 골프의 새로운 기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아시아 골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 LPGA 시리즈’는 6~10개의 규모로 구성하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 코리아오픈’이 최종전의 역할을 겸할 예정이다.

한편 KLPGA와 CTGA는 공동주최 형식의 ‘타이완 우먼스오픈(Taiwan Women’s Open(가칭))’을 만들기로 하고, ‘아시안 LPGA 시리즈’를 구성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하이트진로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공식스폰서

프리미엄 와인 ‘타라파카’



전통을 이어온 대회이자 국내 유일의 LPGA 정규투어 대회로 2017년에는 하이트 진로의 고진영선수가 우승을 하며 LPGA투어 직행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올해 대회에는 LPGA 올해 메이저대회 챔피언인 박성현(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해 아리야 주타누간(태국), 조지아 헐(잉글랜드) 등이 출전하며 디펜딩 챔피언인 고진영(하이트진로)과 김세영(미래에셋)등도 출전할 예정이다.

타라파카는 공식스폰서로 ‘2019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VIP 공식행사 및 갈라디너에 ‘타라파카 그란 레세르바 까베르네 소비뇽(Tarapaca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을 단독제공한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 목욕용품 등 해외유명 브랜드 몰아내고…

# 호텔업계, 자체 브랜드로 ‘고급화’

### 브랜드만의 경쟁력 ‘부각’ 인지도·충성도 향상 기대

국내 호텔들이 배스 어메니티(Bath Amenities)의 자체 제작에 주목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텔들은 자체 제작한 배스 어메니티를 선보이고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들여놓던 기존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호텔들이 배스 어메니티의 자체 제작에 나선 이유는 최근 호텔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대 수준이 높아 서비스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반응한다. 최근에는 배스 어메니티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면서 “자체 어메니티 제작은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호불호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하고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과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어 특급 호텔들이 앞다퉈 배스 어메니티 제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W 메리어트 서울은 지난 8월에 리뉴얼 오픈하면서 특별 제작한 자체 어메니티를 내놨다. 세계적인 헬스&뷰티 ODM 회사 코스맥스(COSMAX), 신세계 시코르(CHICOR)와 협업해 제작한 제품이다.

JW 메리어트 서울은 리뉴얼 오픈 이후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미각, 촉각, 후각



해비치 배스 어메니티. /해비치 호텔

등 오감을 모두 겨냥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수를 띠웠다. 특히, 시그니처 향을 개발해 호텔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배스 어메니티는 샴푸, 컨디셔너, 보디워시, 보디로션으로 구성됐다. 고대부터 세정, 정화, 진정, 보습 등의 미용에 사용된 허브, 꽃, 씨앗 등을 활용하는 한편, 프로방스 지역에서 재배된 라벤더를 사용해 깨끗한 자연의 향을 담았다. 또 500ml의 판매용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글래드 호텔은 지난 7월에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뷰디아니와 협업한 호텔 자체 제작 어메니티 ‘글래드 by 뷰디아니(GLAD by BEAUDIANI)’를 출시했다.

코코넛 유래 성분 및 피부 친화적 오일을 사용한 친환경 성분을 담아내 만큼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샴푸와 컨디셔너, 보디워시, 보디로션 외에 페이셜 클렌징 패드가 추가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으로, 풍부한 장미향을 느낄 수 있다. 별도 구매도 가능하다.

최근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이탈리아의 커스터마이징 퍼퓸 마스터와 협업해 시그니처 향을 담은 ‘해비치 배스 어메니티’를 출시했다.

이번 어메니티 제작에 참여한 이탈리안 조향사 실레노 켈로니(Sileno Cheloni)는 피렌체의 5대 퍼퓸 브랜드 ‘아루아플로(AquaFlor)’의 마스터 퍼퓸어를 거친 인물이다.

켈로니는 지난해 제주에 직접 방문해 곳자왈 숲과 바다, 현무암, 감귤 등에서 영감을 받은 해비치만의 시그니처 향을 개발했다. 최고급 향료인 앤버그리스와 침향 나무에서 추출한 우드 등을 사용해 묵직함과 고급스러움, 상큼함이 어우러졌다.

해비치의 어메니티 전 제품은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저자극 인증 제품으로, 해비치가 운영하는 제주 해비치 호텔과 롤링힐스 호텔, 해비치 컨트리 클럽 서울 및 제주에 비치돼 있다. 곧 50ml, 500ml 1 두개 용량의 판매용 제품도 출시된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자 방문한 고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힐링의 기분을 선사하고자 천혜의 자연 경관을 품은 제주의 특색과 고급스러운 향을 담은 해비치 배스 어메니티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향기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요소인 만큼, 고객들이 해비치에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을 해비치 시그니처 향과 함께 오래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인천공항 가는 길 쉽고 스마트해진다”

### 인천공항-네이버랩스

‘스마트 공항 안내’ MOU



지난 10일 성남시 분당 네이버랩스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네이버랩스 간 ‘인천공항 실내지도서비스 활용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정준 스마트추진단장(왼쪽)과 네이버랩스 송창현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1·2터미널)와 최적 주차구역 정보를 알려준다.

또 출국장 혼잡도를 반영한 최적경로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공항 공식 모바일 앱인 ‘인천공항 가이드 앱’에 첨단 실내 AR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도입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체크리스트’ 도입

### 예보 상생·협력 등 4개 분야 9개 항목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사업 수립 단계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보는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시 상생·협력 등 4개 분야 9개 항목에 이르는 사회

적 가치 핵심사항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4개분야는 공사의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목표인 ▲포용적 금융 실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상생·협력 및 금융시장 안정 ▲지속 가능한 가치창출체계 구축이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 배려, 동반성장,

국민 참여 등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다각도로 접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요 업무 전반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염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입 초기 시행결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